

저축은행 가계대출 한 달새 5.3% ↑

'2월 중 금융시장 동향' 지난 1월 19조2620억원으로 전월 대비 9770억원 늘어... 역대 최고

정부의 여신심사카기드라인 등으로 대출 수요가 2금융권으로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나타나면서 상호저축은행의 가계대출이 20조원에 육박했다. 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 1월 상호저축은행의 가계대출은 19조2620억원으로 전월(18조2850억원) 대비 9770억원(5.3%) 늘었다. 저축은행 가계대출은 관련 통계 집계 시작된 지난 2003년 10월 이후

가장 큰 규모다. 1월 증가율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저축은행 가계대출 증가율은 지난해 9월 0.9%에서 10월 1.7%, 11월 2.0%, 12월 2.5%, 올해 1월 5.3%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밖에 신용협동조합(37조406억원, +3486억원), 상호금융(171조8294억원, +7776억원), 새마을금고(64조8618억원, +8601조) 등의 비은행 예금취급기관들의 가계대출이 증가세를 나타

냈다. 전체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은 294조1970억원으로 전월 대비 2조9410억원(1.01%)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이 1조8720억원(1.6%), 기타대출이 1조690억원(0.6%)씩 늘었다. 반면 여신심사카기드라인 등의 영향으로 예금은행 가계대출은 소폭 감소했다. 1월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은 615조3320억원으로 2조890억원(0.34%) 감

소했다. 주택담보대출이 1조3320억원(0.3%), 기타대출이 7570억원(0.4%)씩 줄었다. 예금은행 가계대출이 줄고 2금융권은 늘면서 전체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은 소폭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1월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은 909조5280억원으로 8524억원(0.1%) 늘었다. 주택담보대출이 5400억원(0.1%), 기타대출이 3120억원(0.1%)씩 증가했다. /뉴시스



쏘렌토 가솔린 2.0 터보 출시

기아자동차는 9일 중형 SUV 쏘렌토의 가솔린 모델을 출시하고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쏘렌토 가솔린 2.0 터보' 모델은 세타II 2.0 T-GDI 엔진을 탑재해 최고 출력 240마력(ps), 최대토크 36.0kgf·m의 강력한 동력성능을 구현했다. 또 ▲SUV의 장점인 높은 공간 활용성 ▲가솔린 엔진의 장점인 정숙성 ▲합리적인 가격 등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실속과 고객들을 겨냥한 경제형 트림 '프레스티지'와 고급형 트림 '노블레스' 등 총 2가지 트림으로 운영되며 터보 전용 엠블럼이 부착된다. 프레스티지 트림은 ▲운전석 파워·통풍시트 ▲하이패스 룸미러 ▲버튼 시동 스마트키 등 운전자 중심의 필수 편의사양과 함께 ▲동승석 통풍시트 ▲2열 열선시트 등 동승자를 배려한 사양들이 기본 적용됐다. 가격은 2.0 디젤 모델 동일 트림 대비 160만원 낮은 2825만원이다. 노블레스 트림은 ▲스마트 테일게이트 ▲전자식주차브레이크(오토홀드 포함) ▲전방주차보조시스템 ▲19인치 럭셔리 알로이휠 등 고객 선호도가 높은 고급 사양들이 대거 적용됐으며 가격은 2.0 디젤 모델 동일 트림 대비 105만원 낮은 3060만원이다.

기아차 관계자는 "쏘렌토는 높은 상품성을 기반으로 고객들의 지속적인 사랑을 받으며 중형 SUV 시장 1위를 지속하고 있다"며 "강력한 동력성능과 정숙성을 가진 가솔린 터보 모델을 통해 기아차의 입지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휴의 날 기념식 9일 오전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에서 열린 '제2회 휴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김병원(왼쪽 네번째) 농협중앙회 회장을 비롯한 내빈들이 기념 퍼포먼스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롯데 중국계열사 자금회수 움직임 없어”

금감원, 은행권 여신 실태 파악 나서... 은행들 상황 예의주시 중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의 롯데 중국 계열사 여신에 대한 실태 파악에 나섰다. 롯데그룹 중국 계열사에 묶인 익스포저는 은행별로 수백억원에 수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의 경우 중국 베이징에 있는 일부 롯데슈퍼 지점이 다음달 중 완전히 철수하는데다 3조원이 투입된 '중국판 롯데월드' 프로젝트 공사도 중단됐다. 지난 8일 기준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롯데마트 중국 내 지점 수는 모두 55곳으로 늘어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중은행들이 롯데 중국 계열사 여신 한도를 축소하

거나 자금을 회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고 있다"며 "상황을 모니터링해 향후 채권은행과 여신 관리 방향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은행들도 중국의 경제 회복이 전방위로 확산될 수 있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사드 리스크가 커지면 건전성 차원에서 한도를 줄이거나 금리를 높이는 식으로 여신 관리에 나선 것으로 전망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당장 롯데 중국 계열사의 자금을 회수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중국의 회복 수위를 지켜보며 여신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뉴시스

거나 자금을 회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고 있다"며 "상황을 모니터링해 향후 채권은행과 여신 관리 방향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은행들도 중국의 경제 회복이 전방위로 확산될 수 있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사드 리스크가 커지면 건전성 차원에서 한도를 줄이거나 금리를 높이는 식으로 여신 관리에 나선 것으로 전망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당장 롯데 중국 계열사의 자금을 회수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중국의 회복 수위를 지켜보며 여신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뉴시스

2월 자영업자 대출만 눈덩이

기업대출 증가폭은 축소

2월 들어 전반적인 기업 대출 증가세가 축소됐지만 자영업자들은 대출 규모를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의 기업 대출은 758조8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4조4000억원 늘었다. 기업 대출이 소폭 늘긴 했지만 증가폭은 1월(9조원)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2월 대기업 대출은 160조4000억원으로 9000억원 늘었고, 중소기업 대출은 597조9000억원으로 3조5000억원 증가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1월(대기업 +4조8000억원, 중소기업 +4조2000억원)에 비해 증가폭이 축소됐다. /뉴시스

기업들은 회사채 순발행액(+1조2000억원), 기업어음(CP) 순발행액(+5000억원), 주식발행액(+3000억원) 등을 늘리며 은행 대신 증권시장 등에서 자금 조달 규모를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개인사업자의 은행 대출은 264조원으로 1조7000억원 증가해 1월(+1조3000억원)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됐다. 한 관계자는 "통상 기업들이 1월에 부가가치세를 납부 등으로 대출을 늘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2월에는 계절적 요인이 소멸되면서 증가폭이 축소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개인사업자 대출의 경우 담보 비율이 높아 신용 리스크가 낮게 인식되고 있고 주택담보대출보다 금리가 높아 은행들이 꾸준히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뉴시스

카카오페이 '계좌로 송금' 기능 출시

횡수 제한·수수료 없어

카카오페이가 신규 기능 도입과 금융기관 제휴 확대로 더욱 간편한 모바일 송금 서비스를 선보인다. 카카오는 카카오페이 송금 서비스에 모든 시중 은행, 우체국, 상호금융 등 금융기관들과 100% 호환되는 '계좌로' 송금 기능을 추가했다고 9일 밝혔다. '계좌로' 송금 기능은 별도 어플리케이션 설치 없이도 카카오 앱 내에서 은행 계좌로 횡수 제한과 수수료 없이 간편하게 송금할 수 있다. 고객은 기존 카카오페이 송금 인터페이스에서 '계좌로'를 선택 후, 비밀번호나 지문 인증만 하면 된다. 이 기

능을 통해 상대방이 카카오톡 친구 및 카카오페이가 가입자가 아니어도 쉽게 빠르게 송금할 수 있다. '계좌로' 송금도 기존 카카오톡 송금과 마찬가지로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공인인증서, OTP(일회용 비밀번호) 없이 메시지를 보내 듯 빠르고 안전한 송금이 가능하다. 카카오페이가 송금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포르기' 기능도 최근 도입됐다. 이 기능은 카카오톡 그룹 채팅방을 통해 친구에게 송금을 요청할 수 있는 기능이다. 카카오페이는 이 외에도 결제시 지문인증 기능과 하나금융그룹과의 제휴를 통해 카카오톡과 하나머니의 일대일 교환을 지원하고 있다. /뉴시스

도로명주소 실시간 '내비'에 반영

앞으로 전날 생성된 도로명주소라도 차량 내비게이션에 입력된다. 행정자치부는 내비게이션에서 활용하는 특화된 도로명주소 데이터베이스(DB)를 관련 업계에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 행자부는 먼저 매일 새로 생기거나 없어지는 도로명주소가 실시간으로 내비게이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내비게이션 전용 도로명주소

DB는 건물 위치와 출입구 정보 등 상세 정보도 제공한다. 단지 내 도로가 있는 대단지 아파트의 경우 건물 앞까지, 지상으로 차가 통행할 수 없는 아파트는 가까운 출입구까지 안내받을 수 있다. 행자부는 SK텔레콤 T맵과 협업해 성남 분당구를 대상으로 시범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보완해 하반기에는 카카오톡 등 내비게이션 업계 전체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뉴시스

우리동네 무인주차장 어디에 있을까?

주차하고 구경하고 무인주차장에 주차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편리합니다.



[전주시 무인주차장 안내]

- 서부신시가지 도청영**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75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노송천 주차장**
전주시 노송여울2길 108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농협중앙회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5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다은병원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2길 5-12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KB은행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1길 4-1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덕진광장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덕진광장로 3 (239-2562)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실내체육관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권삼덕로 308 (251-1264)
(연중무휴) 4,000원 기본(30분):500원, 추가(15분):250원